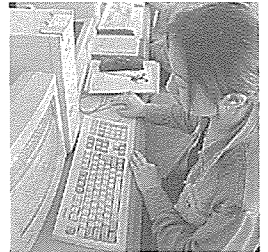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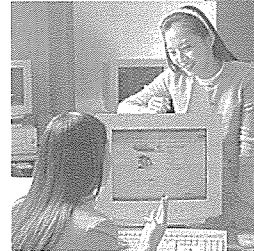


숙명여대 원격교육공학대학원

정원 30명 ... 수업·시험 온라인으로



지난해 11월에 인기를 받아 올해 개교한 숙명여대 원격교육공학대학원은 수업의 80%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과제물 제출은 물론 시험도 온라인을 이용하고 있다. 이 대학원은 정원 30명으로 교육공학의 여러 분야중 특히 사이버교육분야의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했다.



대학원생이 온라인 수업을 받고 있는 모습.

지난 해 11월 교육인적자원부의 인가를 받아 올해 첫 개교에 들어간 사이버대학들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원격교육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문제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원격교육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전문가의 부재로 인해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3월 설립된 숙명여자대학교 원격교육공학대학원(Graduate School of Cyber Education Technology)의 존재가 돋보인다.

원격교육 전문인력 양성 위해 올해 개교

숙명여자대학교 내, 특수대학원인 원격교육공학대학원은 30명 정원으로 학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는 대학 전공과 무관하게 지원할 수 있으며, 여대이면서도 남녀 모두 지원 가능하다. 이 대학원의 기본적인 수업은 모두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며, 과제물 제출은 물론 시험도 온라인을 이용하고 있다. 교육과 실습이 병행되고 있는 셈.

“원격교육공학대학원은 교육공학의 여러 분야 중 특히 사이버교육분야의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원격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현재 대학원의 주임교수를 역임하고 있는 유평준교수의 설명이다. 유평준교수는 한양대 교육공학과에서 석사를 마치고,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아 동대학 수석연구원으로 지낸 경력이 있다.

온라인 수업에 대해 유교수는 “직접 캠퍼스를 방문하지 않고도 수업을 본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시간에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장점으로 든다. 또한 지금 현재 과정 중에 있는 대학원생들은 원격 수업의 장점으로 지난 강의를 언제든지 반복하여 수강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는다고 한다.

원격교육공학대학원의 수업은 매주 학생들에게 프리젠테이션 자료와 오디오를 이용해 제작된 멀티미디어 강의로 이루어진다. 모든 강의 내용이 온라인 강의실에 저장되므로 학생들은 언제나 지난 강의를 반복해서 학습할 수 있으며, 강의실 내에 질의·응답 코너를 마련해, 학생들이 강의내용에 대한 질문 사항 및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보통의 대학원 강의가 과목별로 한명의 교수에 의해 진행되는데 비해, 이 대학원의 수업은 매 주 각 강의 주제에 대한 전공 교수자를 선정, 필요에 따라서는 외부 교수를 초빙하기도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해당분야를 전공한 전문연구원을 두고, 대학원생들의 학습 협력자 역할을 전담하게 하는 일대일 학습자 관리체계의 운용이 원격교육공학대학원의 큰 특징. 유교수는 이에 대해 “전담 튜터들은 온라인 학습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학생들을 격려하고, 상담하는 조력자일 뿐만 아니라, 해당분야 전문연구원으로서 함께 학습해 나가는 튜터이자 동료 학습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한다.

이외에도 학생들이 팀을 이루어 각각의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협력학습할 수 있도록 온라인 상에 협력학습실이 마련돼 있으며, 학생들과 운영자, 그리고 교수가 함께 실시간으로 토론할 수 있는 온라인 토론실도 운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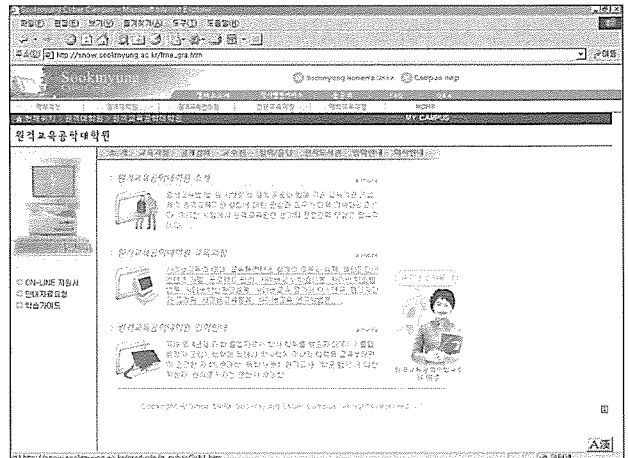
“우리 대학원은 숙명여대 사이버교육원의 전문 교수 설계진에 의해 개발된 독자적인 원격교육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실에는 자기정보관리 메뉴가 마련돼 있어, 최소 학습시간 대비 자신의 총 학습시간과 접속 회수 및 세미나실 참여, 질의·응답 등에 대한 이용현황 조회가 가능하고, 언제 어디서나 학습과정과 참여도 등을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참여도는 이후 성적에 반영된다.

대학기 오프라인 특강 교수와 만나

그러나 원격교육공학대학원의 모든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매 학기 오프라인 특강을 열어 교수와 대학원생들이 직접 만나는 자리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유교수는 “온라인 학습형태와 오프라인 학습형태 각각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여 학습을 극대화하는 운영전략의 일환”이라고 지적한다. 다른 한편, 이 대학원은 대학원생의 75% 이상이 현직교사, 공무원, 기업 내 사이버 교육 담당자 등 직업을 가지고 있다. 이는 학습에 있어서 시간·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반영된 것. 따라서 원격교육공학대학원은 이후 계속적으로 ‘초·중등학교 교사의 재교육 및 자기 개발과 연계된 학위 프로그램’, ‘기업체 인재개발 담당자의 원격교육 관련 전문성 개발과 연계된 학위 프로그램’을 육성시켜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국내의 사이버 대학들은 현재 교육의 형태나 운영 전략에 따라 수업의 수준도 천차만별이고, 우려의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유교수가 지적하는 온라인 수업의 가장 큰 문제는 ‘심리적 거리감의 유발’에 있다. “원격 수업을 통해 학습공간과 학습자 사이의 물리적 거리감을 좁히는 데 성공했지만, 상호간 접촉의 공간이 부족해 심리적 거리감이 유발된 거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대학원은 인간적인 상호작용의 극대화를 위해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오프라인 모임 등을 통해 심리적 거리감을 줄여 공동체 의식을 창출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별도의 외부 감사나 인증이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원격교육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의 부재도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 이에 대해 유교수는 “사이버 교육에 있어서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는 기존의 교실 교육과



숙명여자대학교 원격교육공학대학원 홈페이지 (<http://snow.sookmyung.ac.kr/graduate>)

의 차별적인 특성을 토대로 정부의 현실적인 행정 정책 및 지침을 마련하는 일”이라며, “교수진의 입장에서만 봐도 사이버 강의 준비 시 기존의 강의보다 두·세배의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처우 및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지요”라고 어려움을 토로한다.

원격교육에 대한 정부의 정책 마련 및 교육의 질 향상, 안정적인 시스템의 구축, 전문 인력 양성 등, 국내 원격교육의 갈 길은 아직 멀다. 그러나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원격교육분야의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숙명여자대학교 원격교육공학대학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며, 이후 지속적인 주목이 필요할 것이다.

“1990년대 이후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벌어지고 있는 대격변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인터넷의 보급에 있음을 의문시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는 전통적 비즈니스의 형식을 파괴하고 있고, 전자 민주주의의 가능성이 새로운 정치적 패러다임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교육도 예외는 아니어서 많은 미래 학자와 교육 전문가들은 앞으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사이버 교육이 종래의 전통적 교육을 상당부분 대체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원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효율적인 다양한 학습모델을 개발하고, 양질의 콘텐츠 확보를 통해 국내외 최고의 원격대학원으로서 역할 모델 및 위상 정립에 앞장설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장진선<본지 객원기자>